



대교협 동정



러시아 대학총장협의회와 교류확대 논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총장협의회와 한-러 대학간 학생교류 및 연구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교협-러시아총장협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의 총장협의회는 오는 9월에 러시아총장협의회가 대교협을 방문하여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 러시아총장협의회(Russian Rectors' Union)는 러시아 1천여개 공립대학총장의 협의체로 100여개의 주요 대학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 고등교육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고 있다. 8개 연방분과로 구성된 러시아총장협의회는 러시아 교육과학부, 러시아 연방대통령이 공인한 기관으로 러시아 고등교육의 가장 대표적 기관 중 하나다. 대교협 회장단은 빅토르 안토노비치 러시아총장협의회 회장(모스크바 국립대 총장),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러시아총장연합 부회장, 올가 카슈리나 러시아총장협의회 사무총장,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극동연방지역 대학총장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대학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중동 지역 파견 확대 추진 사업계획 공고

-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국가 다변화를 위해 중동 지역 인턴 수요처 신규 발굴, 국고지원금 규모 추가 확대
- 중동 지역 신규 파견에 따라 중동 문화 및 안전 교육 실시 등 학생 안전 관리 방안 강화계획 공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중동 지역 파견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중동지역 파견 인원은 총 125명 내외(대학 65명, 전문대학 60명)이고, 7월 중에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거쳐 9월에 파견할 예정이다.

◦ 대학 및 전문대학은 전공과 연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국고보조금의 50%, 30%를 대응투자하고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20학점 내외로 학점을 인정해야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성적 평점은 평균 B⁺ 이상이고,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 파견 학생 선발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나, 글로벌 경험이 적은 저소득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대 선발을 실시한다.

◦ 대학의 경우는 소정의 참가 조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자체기준으로 선발하고, 전문대학은 학교에서 자체기준에 의해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가, 현지 교육기관 관계자 면접을 통하여 선발한다.

□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대학생은 기존 국고지원금 기준 외에 체재비(일부)를 추가하여 지원받게 되며, 전문대학생은 1,2차 사업과 동일하게 항공료, 비자발급비 등 공통항목 외에 현지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체재비(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중동 파견 국고지원금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항공료	비자발급비	인턴십관리 운영비	보험료	체재비 (일부)	현지어학 교육비	직무 교육비	소계
대학	2,000	1,000	1,200	300	1,000			5,500
전문대학	2,000	1,000	1,200	300	1,000	1,000	1,000	7,500

□ 특히, 전문대학은 중동 지역 파견을 위하여 전문대학협의회 주도로 Middlesex University of Dubai campus 등 현지교육기관 및 인턴기관(수요처)을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 이와 더불어, 중동지역 파견 글로벌 현장학습은 금번이 첫해이므로 중동 문화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공관과의 연락체계 구축·현지 관리자 상시 연락체계 유지 등 학생 안전 관리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은 정부해외인턴 포털사이트(www.ggi.go.kr)에 탑재되어 있는 공고를 참조하여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대학 소식



전북대학교



□ 여름방학을 맞은 전북대(총장 서거석)가 세계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캠퍼스로 거듭난다. 전북대가 국내와 해외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는 '국제하계대학'을 개설, 7월 2일 오후 3시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 축하공연으로 한국음악과 한국무용으로 무대를 수놓은 이날 개막식에서는 서거석 총장의 인사말과 강사 및 과목에 대한 소개, 각 국가별 학생 소개 등이 이어졌다.



□ 이번 국제하계대학에는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모두 50명의 학생이 우리 대학을 찾아 국내 학생들과 한국어 및 영어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의 특강, 한국문화 체험 등을 진행한다.

□ 이와 함께 이미 전북대는 미국 국무부의 언어집중 교육 프로그램(CLS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우수 대학생들이 지난 6월 18일부터 8주간 전북대에 머물며 한국어 수업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야말로 세계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하계대학'은 여름방학 동안 국내 및 해외 학생들을 모집해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강의와 한국문화체험 등을 제공해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방학 동안 외국 자매결연 학생들을 초청해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Feeling Korea Program)을 진행해 왔던 전북대가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국내 및 외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 이를 통해 세계에 전북대의 높은 위상과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이미지도 세계에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 역시 세계 우수 대학생들과 친근하게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글로벌 마인드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서거석 총장은 "국제하계대학은 해외 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함께해 글로벌 캠퍼스의 전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알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해외 유명 대학 교수님들을 초청해 국내 최고의 글로벌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 개발도상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 방한했다.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는 7월 10일 오후 5시 서울 국립국제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 대학생들을 초청해 한국을 알리는 '2012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프로그램 개회식을 열고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주요 국가의 미래 지도자가 될 우수 대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은 러시아, 브라질, 이집트 등 세계 25개국 58명.

□ 부경대는 한국사의 이해, 한국경제 및 기업경영, 한국어 개관 등 영어강의를 비롯해 선박실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사선 탐양호(653톤)를 활용한 해상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국제서머스쿨, 원어민초청프로그램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국내외 대학생 140여명과의 교류기회도 마련한다.

□ 참가자들은 서울의 경복궁, 북한산, 창덕궁, 종묘를 비롯해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한국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경주 고택에서 한국의 전통 가정문화도 체험한다. 이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및 현대자동차 공장, 고리원자력본부 등을 방문해 한국의 발전상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게 된다.

□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미안 카스틸레자 게라르도 시누헤 씨(31·멕시코국립대)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을 방문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가톨릭대(총장 소병욱)가 해외취업을 선도하고 있다. 졸업생 10명이 최근 해외취업에 성공하며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잇달아 선정되는 등 취업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 대구가톨릭대 스페인어과 졸업생 이종백씨(25) 등 10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본교와 멕시코에서 비즈니스 실무과정을 마치고 최근 멕시코의 일산일렉트로닉스, 태경, 태성, 한서오토모티브, POSCO MPC 등 한국기업의 해외법인에 나란히 입사했다.

□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취업프로그램(GE4U)의 하나로, 지난해에도 이 과정을 마친 졸업생 6명이 멕시코의 CJ GLS(CJ그룹 물류회사), 칠레 한국대사관 등에 취업했다. 연수생 전원이 2년 연속 취업에 성공한 것은 이 프로그램 참가 대학 중 대구가톨릭대가 유일하다.

□ 지난해 CJ GLS에 입사해 현재 영업기획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광모씨(28)는 “본교의 해외취업 연수과정과 멕시코에서의 실습과정을 통해 현지의 문화 및 비즈니스 실무를 공부한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 대구가톨릭대는 하반기에도 GE4U의 중동 및 중남미지역 연수과정이 선정돼 10명의 졸업생들이 9일부터 27일

까지는 본교에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멕시코에서 연수할 예정이다. 중남미지역 특화 연수과정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대구가톨릭대가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 GE4U 연수과정에 선정되면 수백만원에 이르는 연수 및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와 대학,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이 때문에 연수생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취업 연수를 할 수 있다.

□ 대구가톨릭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 2학기에 3, 4학년 5명이 멕시코와 칠레 등에서 약 4개월간 현장실습을 할 예정이다. 실습 분야는 호텔 및 여행업, 통역 및 번역, 한국어교육 등이며 최대 17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대구가톨릭대는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초 해외취업지원센터(센터장 김우중 교수)를 설립하고 해외 현장실습,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센터는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강좌와 문화 강좌를 개설하고 취업동아리를 활성화해 학생들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우중 해외취업지원센터장은 “해외에는 블루오션이 많다. 해외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학교 측의 취업지도나 알선(개인 취업 제외)으로 해외에 취업한 대구가톨릭대 졸업생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80여명에 이른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러시아 등 20여개 국가에서 물류, 전자, 철강, 건설, 섬유, 자동차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2012년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 대상대학 선정결과 발표



□ 꽃동네대학교(총장 이원우)는 2012년 7월 2일(월)부터 7월 7일(토)까지 제6회 꽃대영상캠프 '스물 네 개의 시선'을 개최하였다.

□ 'KKOC 꽃대열린방송'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총 24명이 참가하여 각 팀별로 초단편 3편, 15분 분량의 단편 영화 3편을 제작하였다.

□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보건복지인재의 새로운 소통 능력을 키우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되어 온 꽃대영상캠프는 매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및 방송 전문가를 초청하여 균형 있는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캠프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교내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실시하여 참가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 이번 6회 캠프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영화제작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꽃대영상캠프는 여름에는 영화제작, 겨울에는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영상제작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4(수) 2012년도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lobal Teachers' University)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동 사업에 신청한 교원양성대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교원양성 역량 및 글로벌 교원양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인교대를 선정하였으며, '12년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사업은 교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교원의 교육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1년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 「우수교원 해외진출 5개년 계획」과 「글로벌 교원양성 및 교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제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글로벌화 요구 및 선진국·개도국 등의 한국 교원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 국내 및 해외 학위와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에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원양성대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교육·교원양성 프로그램 등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교육역량에 대해서는 2010년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이번에 GTU로 선정된 경인교육대학교의 경우, 특수·수학·과학 교과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글로벌 과정으로 운영하며,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등과 복수·공동학위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이 한국

및 미국교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미국 등지에서 글로벌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선정된 경인교대의 경우, 예산사정 및 중간평가를 거쳐 4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후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국립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 (한국교원대학교)

□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교원들에게는 해외진출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창의인재가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공개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해당 대학을 상시 지원하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또한, 교과부는 '15년까지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을 전체 교·사대의 20% 정도인 12개 대학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는 사범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중등교원에 대해서도 글로벌 역량 및 해외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학기 와 동일한 3.9% 유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7월 9일 금년도 2학기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7월 11일(수)부터 9월 28일(금)까지 실시하고, 대출금리는 1학기 와 동일한 3.9%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대출기간 : (신청 접수) 2012. 7.11(수) ~ 9.24(월)
(대출금지금) 2012. 7.11(수) ~ 9.28(금)

* 대출금리 : ('11-1) 4.9% → ('11-2) 4.9% → ('12-1) 3.9% → ('12-2) 3.9%

□ 이번 2학기부터 몇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과거 든든학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라도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대출자격이 주어졌으나, 금번 2학기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라도 모든 자녀에게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기준(C학점 이상 또는 70점 이상)에 미달한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별추천제도"의 기준도 성적기준 하한선을 60점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재학생 중 기등록을 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한편, 금년 2학기에도 지난해 9월에 발표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17개교)의 경우 2012학년도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된다.

* 제한대출 대학(13개교)은 등록금의 70%까지 대출 가능, 최소대출 대학(4개교)은 등록금의 30%까지 대출 가능.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교는 2011년 및 2012년에 입학한 1, 2학년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